

2017년 5월 28일 "찾아오신 예수님(30) 큰 일을 주신 주님"(요 14:8-21)

오늘 본문은 빌립의 말("아버지를 보여 주소서")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. 초점은 지난 주 말씀에 이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과 관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.

[1] 아버지를 보는 방식

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.

10 절~ 1. 내가 아버지 안에,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? → 공동체적 존재 방식

2.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그의 일을 보느냐? → 사역/기적

(11 절 - 이 두 가지를 반복하심)

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,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아버지가 뜻하신 일을 당신을 통해 행하심을 말씀합니다. 이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.

[2]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(12 절)

12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? 대표적 해석은:

(1) 이적들을 가리킴(아더 핑크).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이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(참고 히 2:4).

(2) 영적인 일을 말함(L. Morris, H. Ironside).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이고,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는 몇 백 명 안 되었으며 오순절 후 사도들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몇 천 명씩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12 절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

(3) 선교학자들은 예수님의 당대 선교 스케일보다 현재 교회들의 선교 스케일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것은 선교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

모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"일"이라는 단어를 14:1 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의도와 품으신 꿈(희망)의 맥락에서 읽어내야 합니다.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?

2 절.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충만하신 영광에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.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원하여 형성된 거대한 모임(congregation, universal church)을 말합니다.

이 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도 맞으시고,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. 지난 4.16. 부활절 설교에서,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는데,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. 구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, 신약은 이 교회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완성을 향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. 따라서 신구약이 강조하는 궁극적 지점은 교회의 참 교회 됨에 있습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.

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12 절에서 "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(교회를 세우는)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"

따라서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희생적 사랑의 관계적 삶을 시작하셨으니 그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. 사도로부터 우리까지 포함하여 진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죠. 그러면 진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?

[3] 교회가 가져야 할 표지들

(1) 10-11 절 말씀. "내가 아버지 안에,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"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.  
이것은 동일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, 뜻과 계획, 일하는 방식이 하나된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. 요한복음의 반복적 표현입니다.

14:20 "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,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"

15:5 "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"

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 특징은 서로 안에 거하며 마음과 방식이 친밀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.

(2)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. 13 과 14 절 (15:7, 16 참조)

이 말씀은 성경의 목적, 참 교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.

무엇을 간구해야하는가는 개인적 목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, 개인주의적 자신이 공동체적으로 최적화되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.

(3) 또 다른 보혜사,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. 16,17 절. 성령이 오시는 유익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.

<맺음>

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.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일을 행하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셨고 당신이 시작한 일을 제자들에게 더 큰 일, 교회의 참된 교회 이루라고 맡겨주셨습니다.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

<나눔의 질문>

1. 14 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2 절에서 시사하는 예수님의 꿈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때, 그것은 구약의 성취이고, 신약에서는 실현된 축복으로서 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.

빌립의 요청에(8 절) 대해 아버지를 보는 길을 설명하셨는데, 이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살고 있습니까? 이것이 참 교회를 이루는 기초임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.

2.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에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. 내가 교회에 들어 온 후 내 인생에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성품 뿐 아니라, 세계관과 삶의 방식의 문제도 포함하여 말씀해 보십시오.

3. 교회의 참된 표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. 나는 그 표지에 얼마나 합당한지, 또, 이것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.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. 오늘날 게인스빌 교회나 또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. 무엇을 결단하여야 할까요?